

농업분야 디지털 전환 선제대응 모색

농진청, 신년사 통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농업에 활용 방안 마련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이하 농진청)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방식에 대응해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미래 농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올해 민·관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 정책 연구개발, 현장 전문가로 외부 전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 내에서는 차장을 주축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개척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함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가상의 디지털 팜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진흥 공무원과 농업인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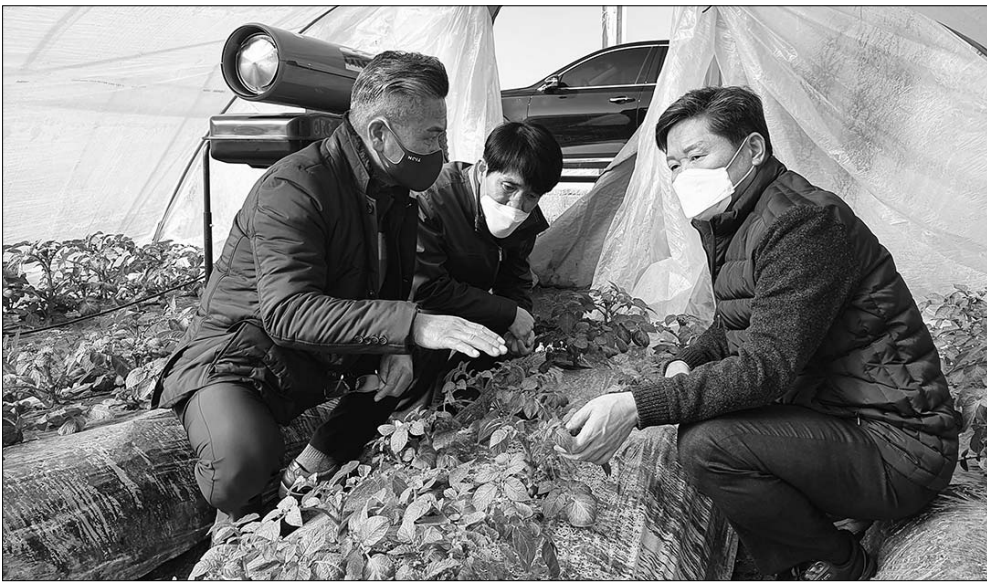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인 대학, 민간기업체가 팀을 이뤄 작물의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디지털농업 경진대회 등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디지털 농업·자유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모아 디지털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진청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례를 올해 4월 개최되는 60주년 개척 기념행사에서 선보일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농협 김제시지부, 광활농협과 함께 지난 7일 김제시 광활면 소재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전북농협 “감자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 김제시지부·광활농협과 시설감자 재배 농가 찾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태곤),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과 함께 지난 7일 김제시 광활면 소재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점검 점검했다.

이번 생육점검은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자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뤄졌다.

광활면에서는 약 280농가가 563ha의 감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보급자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간적지 토양의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의 해풍 등 감자 생육에 천혜의 조건을 갖춰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맛을 자랑한다.

평소 11월부터 파종을 하고 다음해 3월부터 출하를 시작해야 하나 금년도는 파종을 앞두고 비가 내려 밭을 말리느라 평년보다 열흘가량 파종이 늦어져 출하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감자 동해피해 예방을 위해 온풍기 가동과 하우스 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민간의 준비를 다해줄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에서도 감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1월 기록적인 한파로 피해를 입은 광활면 감자재배 농가를 위해 영양제 및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소비자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조달이용 우수고객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윤리경영실 윤권현 부장 유공직원 선정 표창장 수여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조달이용 우수고객에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소속직원 윤권현(윤리경영실) 부장을 유공직원으로 선정하고 이날 조달청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조달청은 매년 조달사업 발전과 조달사책에 기여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조달실적 성장률, 조달사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조달청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이번에도 조달이용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

또한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윤권현 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조달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행정 발전



전북지방조달청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조달이용 우수고객에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울러, 소속직원 윤권현(윤리경영실) 부장을 유공직원으로 선정하고 이날 조달청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aT-세계한인무역협회 농수산식품 수출시장 확대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준진 사장은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정영식 회장과 노성희 부회장 등 일행을 만나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5월 World OKTA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첫 협력 사업으로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에 한국 농수산식품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해외인테나움을 설치 지원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매장의 경우 매장 내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고추장 간장, 참기름 등 한국의 전통 소스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데 전 세계에 뻗어있는 World OKTA의 2만 8천여 한인경제인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인테나움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컨설팅,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와 ESG경영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희 기자



NH농협은행 남원시청출장소 안동신 전 지점장, 시장 표창

NH농협은행 남원시청출장소 안동신 전 지점장은 남원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안동신 지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남원시장 주무사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한주 남원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안 지점장은 2017년부터 NH농협은행 남원시청출장소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며, 특히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주민을 위해 재해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피해주민의 주거안정과 경제활동 복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매년 남원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하며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이 커 이번에도 남원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 우수기관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가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바이오진흥원, 현판 제막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 우수기관’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및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바이오진흥원 1층 현관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동수 바이오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노사협의회 원외회 및 임진 욱아기 직원대표 등이 함께했다.

김동수 원장은 “기관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에 힘쓰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중기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올해도 지속 실시

추가지원규모 3195억원, 자금 소진까지 신청접수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중인 기업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금 상환 등 자금난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1년간 연장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47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거치기간을 1년 연장지원해 기업이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겪고 있는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사정 또한 나아지지 않는 경영여건과 연장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초 작년 말로 종료되는 거치기간 연장을 올해까지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 또는 정상적으로 원금상환 중인 기업이며, 2020

년부터 2021년에 거치기간 연장 신청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은 거치기간 1년 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1년에 거치기간 연장지원을 받은 기업의 추가지원도 실시한다. 기존 지원이력이 있는 기업은 거치기간 6개월 연장을 추가 지원하며, 거치기간 연장지원 기간 내 또는 연장지원 기간 종료 후 1회차 이상 원금을 상환한 기업에 한해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 후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현용 원장은 “이번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민생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중기 지원사업 설명회, 1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중기 기술유출 피해사례 소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10회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오프라인 중심으로 권역별 대면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튜브를 활용한 분야별 온라인 설명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상황 악화,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크게 ▲국내외 판로 ▲금융 ▲기술개발(R&D, 제조혁신, 기술 및 산업기밀 보호)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정책고객별 및 지원분야별 맞춤형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개발 분야 설명회의 경우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중기청과 기술보호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국가정보원 지부도 참여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기술보호 지원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찾아가는 대면 종합설명회’는 현업으로 온라인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중소기업 협회·단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 일정 협의 후 ‘대면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회의 자세한 진행일정과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는 전북중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